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내무부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 <편집자註>



保護環境的第一步

環境保護的第一步是清潔。清潔的環境，可以減少病菌的繁殖，防止疾病傳染。我們應該注意環境的衛生，保持環境的清潔。

環境保護的第一步是清潔。清潔的環境，可以減少病菌的繁殖，防止疾病傳染。我們應該注意環境的衛生，保持環境的清潔。

환경보호의 첫걸음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모기, 파리, 벼룩, 이 등이 가장 쉽게 질병을 전염시키는 유해한 벌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들은 항상 동물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기, 벼룩, 이 등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동물의 혈액을 빨아 먹으며(식물의즙도 빨아먹음) 사람도 역시 동물이므로 그것들의 피를 빨는 대상이 되고 고양이, 개, 소, 돼지, 말 등의 동물들은 더할 나위없이 좋은 대상이 됩니다.

단지 조류등 털이 많거나 가죽이 아주 두꺼운 짐승들의 피는 벌레(이, 모기, 파리 등)들이 피를 빨아먹기가 힘들거나 불편해서 그들의 대상이 안 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들은 그들이 본래 스스로의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것도 아니고 또 독살시킬 수 있는 독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병균을 전염시킬 수 있고 병균을 또 다른 동물의 체내에 옮겨서(왜냐하면 피를 빨아먹기 때문)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병균을 퍼뜨립니다.

인류는 유행하는 모종의 위험한 질병의 재앙을 받습니다. 예컨대 일본뇌염, 학질, 콜레라, 장티프스 등등 이들은 바로 이러한 거추장스럽고 더러운 모기, 파리, 벼룩등이 매개가 되어 병균이 들어있는 물체의 病原을 병이없는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모두에게 병을 얻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 이러한 무서운 病原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모기, 파리, 벼룩 등을 먼저 없애서 병균을 매개시키는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병균이나 세균들은 본래가 그들 스스로 사람의 체내에 날아 들어갈 수 없고, 단지 모기, 파리, 벼룩등에 의해서만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 파리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것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악취가 나는 물은 모기·파리가 번식하는 온상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더러운 곳을 청결히 해야만 그들이 번식·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환경을 청결히 해야 하는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환경보호의 첫걸음

